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rerg: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3.4%... 소비·기업 투자 호조
- WSJ: 연준 선호 물가 지표 PCE 3.6% 상승…2% 연준 물가 목표 상회
- CNNBusiness: 미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 역대 최저…인공지능 시대의 그늘
- WSJ: 연준의 고민: AI 열풍, 높은 금리에 꺾일까?

[미국 금융]
- CNBC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% 상회…강한 GDP·물가 지표 여파
- Bloomberg: 구글, 실적 부진에 시총 5,000억 사라져

[오일]
- CNNBusiness: 트럼프 2기 휘발유 가격, 바이든 시절 넘어서
- WSJ: 원유 1백 불 이상 계속되는 이유는?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Bloomberg: 현대차, 글로벌 둔화 속 美 호조로 3분기 높은 실적
- WSJ: FedEx, 물동량·배송료 상승에 실적 전망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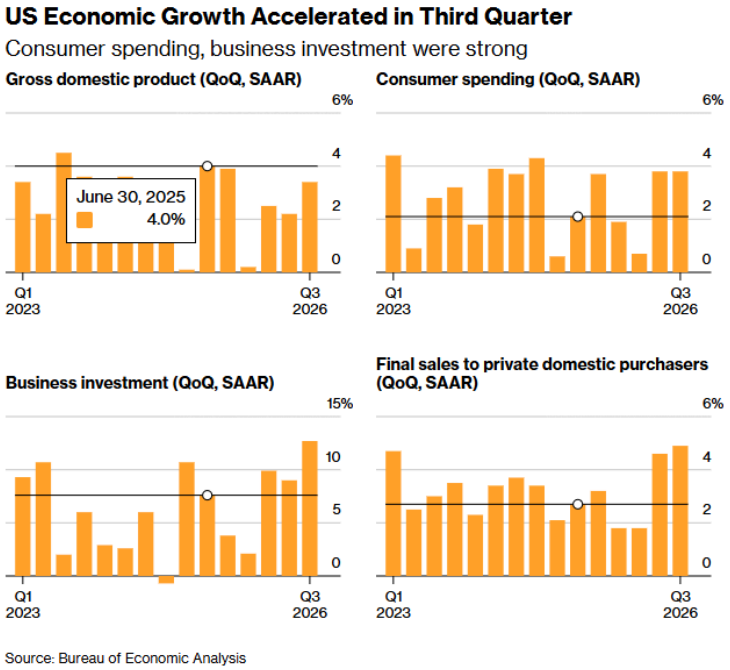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Economy Grows a Faster-Than-Expected 3.4%, Most in a Year
미국 3분기 GDP 성장률 3.4%... 소비·기업 투자 호조

- 소비자 지출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열풍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.

- 연방 경제분석국(BEA)이 오늘 목요일 발표한 1차 추정치에 따르면, 올 3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연을 3.4%로 증가했다. 이는 2분기 성장률(2.2%)과 전문가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.
- 성장을 이끈 주역은 기업 투자와 탄탄한 소비지출이었다. 특히 AI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, 3분기 장비 투자 항목은 크게 성장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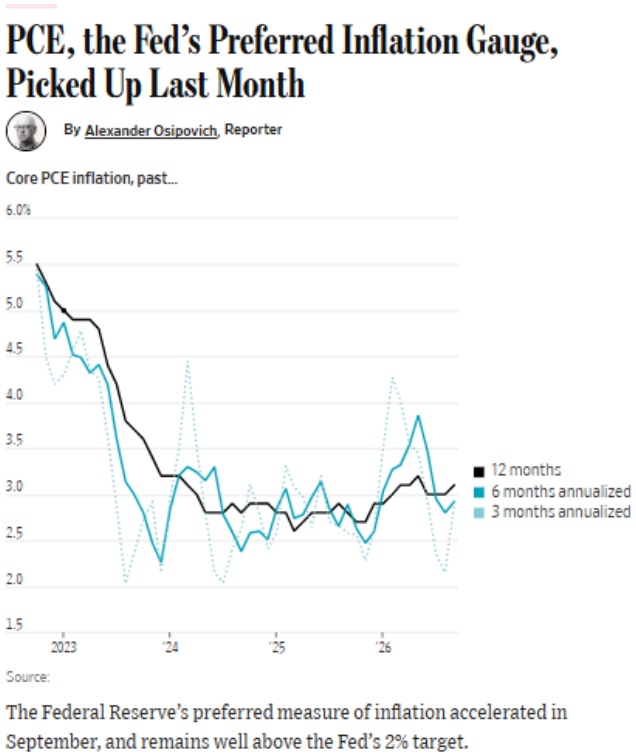


기사

WSJ: PCE, the Fed's Preferred Inflation Gauge, Picked Up Last Month
연준 선호 물가 지표 PCE 3.6% 상승…2% 연준 물가 목표 상회

-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가 올 9월 들어 상승폭이 커지며 연준의 목표치(2%)를 크게 웃돌았다.
- 오늘 목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, 9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6% 상승해 지난 8월(3.4%)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다. 전월 대비로는 0.5% 상승.

-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.1%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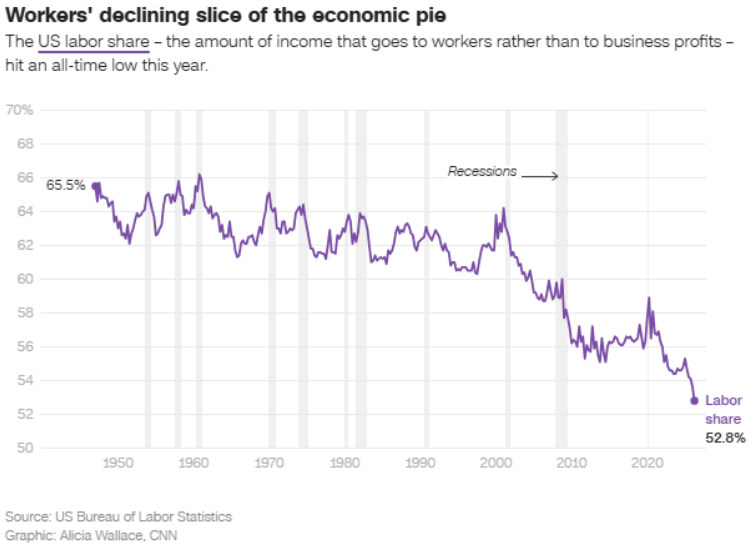


기사

CNNBusiness: Workers are getting a shrinking slice of America's economic pie
미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 역대 최저…인공지능 시대의 그늘

- 미국 경제가 잘나가고 있지만,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.
-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, 올해 초 미국 전체 경제 소득 중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 분배율은 52.8%까지 떨어졌다. 이는 통계가 집계된 1947년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.

- 컴퓨터 도입 이후 줄어들던 노동자 몫은 올해 AI 투자 열풍으로 더 줄었다. 경제 성장의 결실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자본가와 주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.



기사

WSJ: The Fed's AI Puzzle: Will High Rates Slow the Boom?
연준의 고민: AI 열풍, 높은 금리에 꺾일까?

-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, 케빈 워시 의장은 AI 투자도 고금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.
- 막대한 현금으로 금리 인상을 비껴가던 AI 분야마저 높은 금리에 반응하면, 연준은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경기를 식힐 수 있다는 것. 반면 성장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면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.
- 이 같은 상충되는 상황 때문에 연준 해결책은 쉽지 않은데 시장은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10-year Treasury yield hovers above 5% after strong GDP report, rising inflation data
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% 상회…강한 GDP·물가 지표 여파

- 오늘 목요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강력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지수 상승 여파로 5%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5.011%를 나타냈다.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.693%, 30년물 금리는 5.334%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.
- 3분기 GDP 성장률이 3.4%로 높고 9월 PCE 물가지수도 올라 견조한 경제 지표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.

기사

Bloomberg: Google Shares Drop After Sales Miss Reignites Fears Over AI
구글, 실적 부진에 시총 5,000억 사라져

- 구글 주가가 13% 넘게 급락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,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줄었다. 검색·광고 매출 부진으로 주력 사업이 AI 기술에 위협받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다.
- 3분기 구글 매출은 1천1백12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. AI 투자 자금 줄이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검색 등 광고 매출도 5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.
- AI 인프라에 거액을 쏟아붓는 거대 IT 기업이 본업에서 부진할 때 시장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

기사

[오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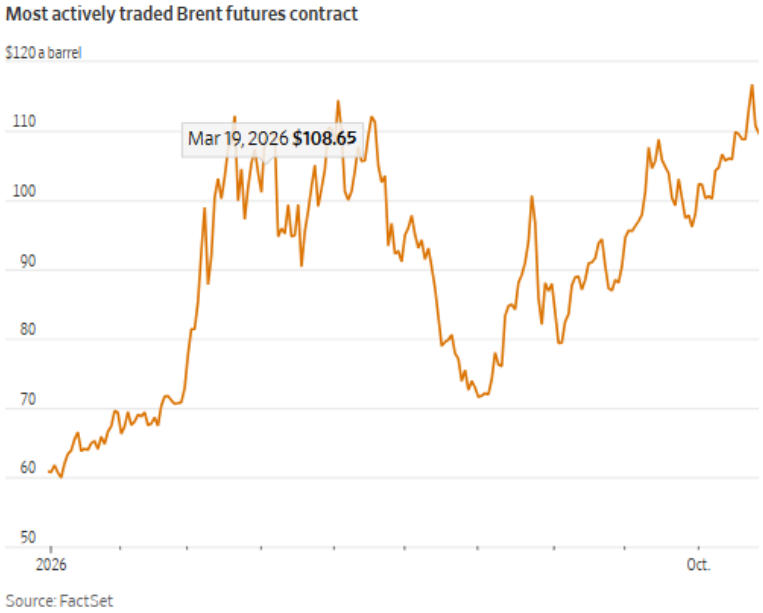
CNNBusiness: Gas under Trump 2.0 is now more expensive than it was under Biden
트럼프 2기 휘발유 가격, 바이든 시절 넘어서

- 트럼프 행정부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바이든 시절을 넘어섰다.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린 여파다.
- 미국자동차협회(AAA) 분석 결과, 트럼프 2기 출범 후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.473달러로 바이든 정부 평균(3.471달러)을 웃돌았다. 이는 10개월 전엔 예견하기 힘들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.
-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연료 부족이 이어지며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고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.

기사

WSJ: Oil Is Gushing Out of the Gulf. Why Are Prices Still Above $100 a Barrel?
원유 1백 불 이상 계속되는 이유는?

-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출이 크게 회복되었지만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.
- 원유 공급이 늘어났지만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다.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 재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다는 것이다. 골드만삭스는 공급 차단 공포로 배럴당 약 27달러의 프리미엄을 더하고 있다고 추산했다.
- 이와 함께 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원유 재고 고갈과 우회 항로 이용, 해상 운임 및 보험료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가 최종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.

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Hyundai Profit Rises as US Sales Offset Global Slowdown
현대차, 글로벌 둔화 속 美 호조로 3분기 높은 실적

- 현대자동차가 북미와 인도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세를 이겨내고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올렸다.
- 3분기 영업이익은 미국 시장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5.5% 증가한 2조 6천8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(2조 6천100억 원)를 넘어섰다.
- 다만 현대차는 가중되는 업계 불확실성을 고려해 2026년 판매 목표를 400만 대로 낮추고, 연간 투자 계획도 16조 원으로 10% 축소했다.

기사

WSJ: FedEx Lifts Outlook as Shipping Rates, Volumes Drive Revenue Growth
FedEx, 물동량·배송료 상승에 실적 전망 상향

- FedEx가 최근 분기 배송료 인상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.
- 이 회사는 화물 운송 부문(FedEx Freight) 분사 여파로 12억 달러의 손실이 반영되며 3분기 순이익이 2억 9천만 달러로 감소했다.
- 그러나 주요 사업부의 매출 호조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약 11%에서 12% 안팎으로 올렸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 타누라 정유소와 국방부, 아덴 공항, 동서 송유관 펌프장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. 사우디 연합군은 일부 미사일을 요격했으며,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.
- 이번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유가(브렌트유)는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고, 금 현물 가격도 3,995.81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 €100를 넘어섰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359.70	-119.9	-0.23%
US 500	7,722.90	-21.5	-0.28%
Dow Jones	52,358.61	-116.49	-0.22%
S&P 500	7,722.90	-21.08	-0.27%
Nasdaq	26,229.11	-320.74	-1.21%
S&P 500 VIX	16.38	-0.53	-3.13%
Dollar Index	101.81	-0.221	-0.22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26/32	5.319	-0.028
10-Year Note	4.625	25/32	4.985	-0.036
7-Year Note	5	2/32	4.880	-0.043
5-Year Note	4.75	2/32	4.799	-0.038
3-Year Note	4.875	1/32	4.734	-0.046
2-Year Note	4.625	1/32	4.662	-0.044
1-Year Bill	0	-1/32	4.420	-0.038
6-Month Bill	0	0/32	4.313	-0.011
3-Month Bill	0	0/32	4.097	-0.005
1-Month Bill	0	0/32	3.980	0.015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38.30	1,494.95	847.67	200.99	1.1153	101.97
-5.20 (0.39%)	-3.66 (0.24%)	-3.64 (0.43%)	-0.71 (0.35%)	+0.0027 (0.24%)	-0.22 (0.22%)
10. 30. 00:25 ● 실시간	10. 30. 00:25 ● 실시간	10. 30. 00:25 ● 실시간	10. 30. 00:25 ● 실시간	10. 28.	10. 29. 11:16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38.30
1,338.30 원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